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⑨ 부모의 마음



▶한줄요약
출가할 태몽을 꾸고 태어난 자식의 출가를 기꺼이 받아들인 부모가 있는 반면, 순순히 허락하지 않은 부모다 많았다. 그리고 출가하여 선승이 된 자식은 찾아온 노모를 문전박대하여 천상으로 인도하기도 했다.

출가 허락한 부모, 반대한 부모

태어날 자기 아이가 스님이 될 것을 계시하는 태몽을 꾸고 되새겨온 부모는 자식의 출가 순간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도의(道義, ?~825), 적인(寂忍, 785~861), 체징(體澄, 804~880), 범일(梵日, 810~889), 징효(澄曉, 826~900), 혜진(惠眞, 869~958), 긍양(兢讓, 878~956), 원각(圓覺, 1107~1174), 원오(圓悟, 1215~1286), 유정(惟政, 1544~1610) 등의 부모가 그랬다. 출가를 계시하는 태몽을 경험하지 않은 부모 중에서도 자식의 출가를 적극 권유한 경우가 있었다. 혜소(慧昭, 972~1054)의 어머니는 보현보살 탱화를 조성하여 곧 낳을 아들이 출가하기를 간절히 발원하며 청정방정한 나날을 보냈다. 태어난 아기의 턱 언저리의 원상(圓相)이 이런 마음가짐의 결실임을 의심치 않았다. 혜소는 부모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출가하여 큰스님이 되었다. 혜덕(慧德, 1038~1095)의 어머니는 '법왕의 제자'가 될 아들을 간구했다. 혜월(慧月, 1861~1937)의 어머니는 어린 혜월을 데리고 이절 저절 다니며 출가의 길을 닦아주었다. 한영(漢永, 1870~1948)의 어머니는 절에서 들은 '생사법문'을 아들에게 전하여 아들을 출가의 길로 이끌었다. 고려 문종은 한 나라의 임금이었지만 가장 영특한 넷째 아들 의천(義天, 1055~1101)을 출가시켰다.

그런데 선승의 부모들 대부분이 자식의 출가를 환영했다고 한다면 '인지상정' 조차 모르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자식의 출가를 앞둔 부모는 으레 흔들리고 머뭇거리며 자식의 결심을 되돌리려 했다. 그것은 불교의 출발점에서부터 그러했다. 마야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숫도다나 왕은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할 수도 있다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을 매 순간 떠올리며 번민했다. 어느 날 태자가 궁 밖 동산으로 구경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신하들에게 엄명했다. 동산을 말끔히 청소하고 태자가 지나갈 길목마다 향수와 꽃을 뿌려라. 금은보석으로 만든 방울을 매달아 이곳이 천상의 낙원처럼 보이게 꾸며라. 길에는 노인이나 병자, 죽은 사람은 물론 벙어리나 장님, 귀머거리 같은 불구자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태자는 궁 밖으로 나오자마자 늙은이를 만났고 이어서 병들고 죽어가는 중생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사문유관(四門遊觀)'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생이 생로병사의 엄혹한 사슬을 벗어날 수 없다는 철칙을 확인하게 했다.

태자가 수행의 길을 떠나겠다고 하니 부왕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줄 테니 제발 궁에서 머물러 있어만 다오"라고 애원했다. "제가 찾는 것은 늙음과 질병과 죽음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죽은 후에라도 다시 태어나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자의 대답이었다. 부왕은 포기하지 않고 최대치의 욕망을 아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써 아들을 붙잡아 두려했다. 부왕의 이런 태도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착'을 전형화한 것이다. 애착은 태자가 떠나간 뒤에 더 강해지고 확장됐다. 이모이며 양어머니였던 마하프라자파티, 태자비 야쇼다라, 그리고 후궁들도 애착을 보였다. 태자를 옆에 둘 희망을 완전히 상실한 부왕은 그 자리에서 졸도했다.

싯다르타 태자의 출가 과정에서 숫도다나 왕을 비롯한 가족들이 보인 모습은 출가하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가 어떤 마음을 경험하게 될지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선승의 출가 과정에서도 부모가 흔들리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강력한 반대의 행동을 하기도 했다.

무염(無染, 801~898)의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하려 한다고 말하자 태몽을 떠올리며 울면서 출가를 허락했다. 순지(順之, 830~895)의 부모는 마지못해 억지로 허락했고, 낭공(朗空, 832~916)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마음 간절하였으나 슬픔을 머금고 승낙했다. 광자(廣慈, 864~945)의 부모는 슬피 울며 거듭거듭 만류하여 뜻을 바꾸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들의 뜻이 굳고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허락하였다. 경유(慶猷, 871~921)와 자적(慈寂, 882~939)의 부모도 눈물을 머금고, 애정을 억누르며 출가를 허락했다.

선승 부모 대부분 출가 허락해
간곡히 애원하며 반대 하기도
만공, 야반도주 감행해 출가길
황벽, 모친 문전박대 왕생케해



숫도다나왕은 태자가 출가에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번민한다. 사진은 석가모니 부처님 고행상.

경보(慶甫, 868~948)의 부모는 출가하겠다는 아들 말을 듣고 탄식하고는 "네가 출가하려는 뜻은 좋으나, 너와 헤어짐은 슬프고 또 슬픈 일이라"하자, 경보는 "뜻은 부모의 곁에 있으나, 마음의 약속은 부처님 앞에 있습니다"고 위로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슬픔을 간곡히 표현하여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사람들의 원하는 바를 하늘도 따라주는 것이거늘 내 어찌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로서 거역할 수 있겠는가"하고 드디어 울면서 허락했다. 법인(法印, 900~975)의 어머니도 전일의 태몽을 생각하고서야 출가를 허락했다. 그리고 "내생에는 나를 제도해줄 것을 원할 뿐 다시는 문에 기대어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니가 짧은 시간 안에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식에 대한 애착을 내려둘 것을 다짐한 것이다.

다른 한편 부모가 더 오래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형미(逈微, 864~917)의 부모는 끝까지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형미는 부모 몰래 출가했다. 만공(滿空, 1871~1946)은 부모가 출가를 반대하자 열두 살 때 아예 야반도주를 감행했다.

진공(眞空, 869~940)과 혜심(慧諶, 1178~1234)의 경우는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에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더 거세게 집착하고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아들은 그런 여건에서 공부를 잘했다. 어머니들은 유학을 더 공부해야 할 때라며 아들의 출가를 반대했다. 그래도 진공은 결국 출가했지만, 혜심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출가를 미루었다. 혜심은 과거에 합격하고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다 어머니가 병이 들자 간병을 하면서 관불삼매(觀佛三昧)에 들기도 했다. 어머니가 여러 불보살님을 두루 알현하는 꿈을 꾸고서 병이 나았지만 이듬해에 세상을 떠났다. 보조국사를 찾아뵙고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한 재를 베푼 뒤 출가했다. 혜심은 아들로서 생전은 물론 사후의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셈이다.

출가하려는 자식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은 자식의 출가에서 두 가지 고통을 감지했을 것이다. 첫째, 부모로서 더 이상 자식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사랑의 박탈이 줄 고통을 감지했다. 둘째, 자식이 세속 행복과 욕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부모로서 바라봐야 한다. 자식의 쓸쓸함에 대한 상상이 줄 고통을 감지했다. 어느 쪽이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벗기 어려운 족쇄를 씌우고 있는 형국이다. 〈법구경〉에는 "자식에 대한 갈애는 번뇌로 이루어진 족쇄로서 세상 족쇄 중 가장 강한 족쇄"라고 했다. 중생은 이 애착의 족쇄에 묶여 있다. 애착의 족쇄는 중생의 현생을 억압하고 윤회하게 한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착을 '부성'이나 '모성'으로 신비화하는 것은 그것이 애착이고 집착이라는 진실을 은폐하는 기제일 수 있다. 우리나라 불교사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효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중세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압받고 박탈감을 느껴야 했던 어머니가 아들의 보호를 받고 아들의 구원을 받는 불교 서사가 고려와 조선시대에 두루 만들어져 여성 불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심리적 보상을 해주었다. 〈안락국태자전〉, 〈금우태자전〉, 〈목련존자전〉 등이다. 선승의 출가를 앞두고 특히 그 어머니가 더 크게 흔들렸던 것도 이런 불교 서사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떠나려는 선승을 울면서 붙잡은 어머니. 이 '족쇄'를 어찌 할 것인가? 이 질문은 부모와 자식 사이 뿐 아니라 존재 일반 간의 애착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끈다.

일체종성(一切種性)은 음욕(淫欲)으로 인하여 태어난다고 한다. 넓게 보면 삼계윤회가 애욕을 근본으로 하여 이뤄진다. 그 중 사람은 애성(愛性)을 근본으로 하여 모태로부터 나와서는 색성향미촉법 등 오진(五塵)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애성이 더해진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불이 바람을 얻어 더욱 세게 타오르는 것과 같다. 이런고로 생사를 초월하고 윤회를 모면코자 하는 이는 마땅히 욕근(欲根)을 뿌리뽑고 애갈(愛渴)을 없애야 한다고 〈원각경〉은 가르친다. 출가하고자 하는 선승이 애갈을 끊고자 하거나 원천적으로 애갈을 갖지 않는다면, 아들의 출가 앞에서 몸부림치는 부모는 애갈에 여전히 집착하는 것이다.

10. 어머니를 죽인 출가자, 어머니를 업은 출가자

출가는 이렇게 세속 가족 관계에 깃든 애착을 끊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지만, 출가자에게 가족의 끈은 질겨서 쉽게 끊어지지 않고 끊어져도 다시 이어지려고 한다. 출가자는 재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출가자에게 '효행'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고려시대 일연(一然, 1206~1289)에게도 우리시대 법전(法傳, 1925~)에게도 깊은 사려를 요구하는 과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가의 한 범례로 회자되는 것이 황벽 희운(黃檗希運, 당나라 선승)의 이야기다. 황벽은 수천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황벽산에 주석하고 있었다. 재가 노모가 의지할 곳이 없어 출가한 아들을 찾아오게 되었다. 소식을 들은 황벽은 노모가 도착하면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고 쫓아내라고 제자들에게 엄명했다. 아들의 품에 안길 꿈을 꾸며 며나먼 길을 걸어온 노모는 아들의 얼굴을 보기는커녕 물 한 모금도 얻어 마시지 못하고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노모가 강을 건너려고 나룻배에 오르는 순간 그만 기운이 다하여 쓰러져 죽었다. 그날 밤 황벽의 꿈에 노모가 현몽하여 말했다.

"내가 너로부터 물 한 모금이라도 얻어먹었던 들 다생(多生)으로 내려오던 모자의 애정을 끊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네게 쫓겨나올 때 깊고 끈질긴 모자의 애정은 한꺼번에 다 끊어졌다. 그 공덕으로 죽어서 천상으로 가니 네 은혜는 이루다 말할 수 없구나."

노모는 그렇게 박대한 아들에게 큰절을 올리고는 먼 길을 행복하게 떠나갔다. 우리 선승들은 황벽의 이런 자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효도로써 그에 화답했을까.

〈연세대 객원교수〉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틱장애, 스트레스, 가정 · 사업 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땅끝 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 성 원
문 의 전 화 010-8208-7836

철학 · 명리 · 주역 · 점술 배우실 분
신내림 인연 제자 · 출가수행자 모집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